

다양한 상품 몰린 첫 주말 오전 노려라 ‘세일 속 세일’ 특가행사서 대박 잡아라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4일부터 일제히 봄 맞이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20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데 평소 마음에 두었던 제품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세일 판매 기간 더욱 알뜰한 쇼핑을 위한 현명한 쇼핑법을 알아보자.

◇광고·전단 침고하고 첫 주말 노려라=통상 정기세일 기간에 주말이 세 번 정도 있어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 중심으로 물량과 대형 행사가 집중된다. 따라서 세일 첫 주말에 행사장을 찾는다면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다.

세일은 기본적으로는 기존 상품을 소진하는 행사이자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세일 초반에 많은 물량이 동원된다. 보통 세일 물량의 40~50%가 이 기간에 판매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먼저 구매할 상품을 미리 정한 다음, 첫 주말 오전 시간을 이용하는 게 최상이다. 서두르는 자에게 좋은 물건을 살 가능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주어지는 법이다.

또 백화점별 광고·전단 등을 통해 사은행사나 브랜드별 할인율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쇼핑에 나서야 한다. 같은 상품도 백화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가격을 비교해 두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화점마다 판촉 방법이 달라 제공하는 사은품도 전자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은품을 주는 백화점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이다.

점포별 발행되는 전단이나 우편홍보물

백화점 세일 ‘알뜰 쇼핑법’

오늘부터 20일까지 봄 세일

신문광고 참고 사전 체크를
실속있는 사은품 꼭 챙겨라

(DM : Direct Mail), 인터넷 사이트를 사전에 꼼꼼히 챙기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통업계는 정보를 몰라 할인과 사은행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10%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매목록을 미리 작성하는 것도 필수다. 세일 때는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가끔 충동 구매 등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특별행사 ‘대박 기회’를 찾아라=정기세일 기간에 백화점은 점포별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 고객들을 모으기 마련인데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점포별 단독 기획 행사는 ‘세일 속의 세일’이라 불릴 정도로 할인율이 높다.

광주신세계는 4일부터 장르별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여성의류 브랜드들의 할인폭이 크다. 여성의류 브랜드 ‘미세즈’와 ‘스피치오’, 아동매장 ‘에뜨와’와 ‘엘르’ 등도 각각 30%의 세일행사를 연다.

‘노스페이스’ 등이 참여하는 ‘유명 아웃도어 특가전’이 8일까지 진행되며 9일부터 13일까지는 ‘신세계 정통 골프대전’ 행사가 이

어진다.

일찍 찾아온 따뜻한 날씨에 세일기간 어려운 상품의 구성비를 늘린 끝내백화점 광주점은 여성의류와 남성의류, 아웃도어 등을 대거 세일한다. 지하 1층 점행사장에서는 8일까지 ‘노스페이스·블랙야크 대전’을 열고 8층 점행사장에서는 ‘슈즈&핸드백 박람회’를 개최한다. 또 10일까지 ‘롯데 와인 페스티벌’을 진행, 세계 유명 와인을 초특가로 판매한다.

◇실속있는 사은품은 꼭 챙겨라=세일기간 사은품 받는 것도 쇼핑의 즐거움 중 하나. 백화점은 행사기간 중 실속있는 사은품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으려 하기 마련이다.

광주신세계는 주말마다 사은행사를 진행하는데 첫번째 주말인 4일부터 6일까지 화장품을 20/40만원 이상 신세계카드로 구매하면 1만원/2만원을 증정한다. 두번째, 세번째 주말 30만원 이상을 구매할 때도 하루 선착순 500개 한정으로 엑티브 스포츠백과 모던보스턴백을 각각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세일 첫 번째 주말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코미카랜드 도자기세트’·‘알레르망 차렵이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두 번째 주말에는 ‘알레르망 알레르기방지 패드’·‘키친아트 냄비세트’ 등 프리미엄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4일부터 13일까지 화장품 상품군, 아웃도어·스포츠·골프 상품군, 가전·가구·주얼리·시계 등 혼수 상품군 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1층 와인매장 직원들이 4일부터 시작되는 봄 정기세일에 맞춰 진행되는 와인 특판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목포 근린주택, 매매 목포시 용당동 1056-5 ‘구’ 맹수한의원 건물

- 2004년도 신축, 6층 건물
- 대지 144P 건평 433P
- 임대상황-1층 5천만원에 월 550만원(아웃도어 매장) 임대
2층 1억에 월 180만원(한의원) 임대
3,4,5층 임대중. 6층주택 임대중
- 매매가-16억5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이전비 없음

순천 근린상가, 매매 순천시 왕지동 872-6 법원 정문농협 뒷건물

- 2013년도 신축, 5층 건물
- 대지 144P 건평 480P
- 임대상황-1층 프랜차이즈 카페 가 계약
2층 커피숍 임대(보 5천만원에 월 200만원)
3층 보험회사 임대(보 7천만원에 월 180만원)
4,5층 임대중
- 매매가-24억
- 법인체 인수 가능-이전비 없음

주인 직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레드페이스 ‘콘트라 로드 워킹화’ 인기몰이

디자인·기능·가격 삼박자…봄 나들이 철 맞아 하루 2천켤레 판매 ‘불티’



국내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대표 유영선)의 ‘콘트라 로드 워킹화’가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하루 평균 2000켤레 판매 기록을 세우며, 누적판매량 2만켤레를 돌파했다.

‘콘트라 로드 워킹화’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레킹 및 트레일 워킹에 적합한 남녀공용 로우컷 워킹화로 최상의 방수, 방풍 기능은 물론 투습성이 뛰어난 자체 개발 소재인 콘트라텍스 엑스투오 프로 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 접지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콘트라텍스 프로 아웃솔은 부틸이라는 특수고무를 사용해 적당한 강도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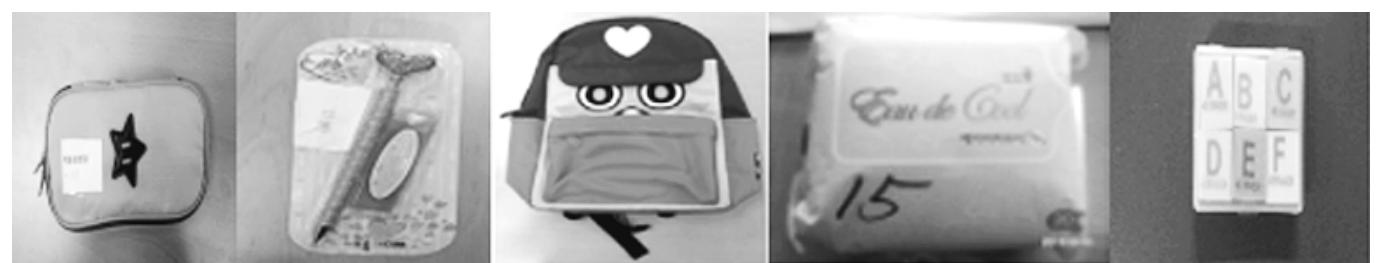
력을 지니고 있어, 바닥에 체중을 싣어 딤을 경우 고무가 암벽의 미세한 요철 사이로 공기를 빼내며, 마찰력을 높여준다.

높은 인장강도로 탄력성이 뛰어난 오랜 등산에서 발의 무리를 줄일 수 있으며, 표면이 더욱 단단해 외부로부터의 파손을 받을

시에도 변형이 적어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거친 바탕길 산행에 대비해 구선강도가 우수하면서 무게는 더욱 가벼워진 기능성 소재인 인젝션 파일론을 미드솔 전체에 사용해 발의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또 신발의 균형성과 뒤틀림 방지를 위해 미드솔 부분에 자루 모양의 생크(Shank)를 적용했다. 신발끈을 빼고 쉽게 매고 풀기 위해 용이한 퀵 레이스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함을 더한 것이 특징인 콘트라 로드 워킹화의 색상은 그레이, 레드, 퍼플, 오렌지, 블루 가격은 6만9000원(현재 매장 판매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중금속이 과다 검출돼 리콜령 대상이된 제품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필통·책가방 등 학용품서 유해 물질 다량 검출

어린이 용품 등 27개 리콜

필통, 책가방,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학용품·어린이 용품 27개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된 제품은 필통·어린이 장신구 각 8개, 물놀이기구·유아용 욕실화 각 3개, 샤프

2개, 지우개·책가방·유아용 섬유제품 각 1개 등이다. 필통과 책가방,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1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 질로 다량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카드뮴·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의 최대 861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밖에 안전장치가 해술해 화재 위험이 있는 등기구류 25개와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된 물티슈 3개도 리콜 명령했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여행도 ‘모바일 시대’ 숙박·항공 예약 거래 비중 30% 돌파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앱으로 여행 예약을 하는 게 ‘대세’로 자리잡았다.

대형 온라인 여행사에서 모바일 거래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앱 돌풍’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에서는 지난 2월 모바일 앱으로 여행 상품이 판매된 거래액이 전체 중 3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11.7%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모바일 비중이 3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항목별로는 국내 숙박에서 앱 비중이 39.

3%에 달했고, 국내 항공에서는 32.4%, 해외 항공에선 29.7%를 차지했다.

인터넷 관계자는 “PC와 모바일 앱이 지난해 9대 1에서 올해 7대 3으로 급변,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면서 “스마트폰 앱은 여행 상품, 속박, 항공편을 손쉽게 검색하고 수시로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놓은 국내 여행 정보 앱인 ‘대한민국 구석구석’도 출시 3년 만인 지난달 다운로드 건수로 300만건을 돌파했다.

관광공사는 2011년 2월 전국 곳곳의 관

광 정보 3만여건을 담아 앱으로 출시했으며, 지난해 8월 최신판으로 3.0 버전까지 내놨다.

이에 따라 ‘엄지족’을 잡으려는 여행사 경쟁도 치열하다.

여행박사는 호텔 예약 앱인 ‘세일투나잇’을 새로 단장해 지난달 다시 론칭했다. 항공, 멘터카 등으로 여행 예약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테마파크, 공연, 음식점 등 추가해 ‘쇼핑앱’을 표방한다.

이밖에 당일 호텔 예약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앱인 ‘호텔나우’ 등 티켓을 공략한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오천경매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오피스텔 “급매”	15P - 3300만 원
	23P - 6500만 원
	53P - 1억 5500만 원